

10년의 도전, 기술로 꽃피우는 전북의 내일

전북자치도 대표 창업 페스티벌 ‘제10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성황리 개최
로컬·테크·AI·핀테크 등 스타트업 130여개사 전시·판매·프로그램 참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이 주최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와 도내 창업지원 기관, 대학, 협·단체, 투자사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제10회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이 3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10년을 열어가길 혁신의 의지를 담았다. 선포식에는 전북창업기관협의회 소속 기관 및 협·단체 대표자, 창업기업 대표, 투자사, 창업에 관심있는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 선포식 세레머니 등이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AI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지역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AI 전환의 중심, 전북 창업생태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 AX 위원회 출범식과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AX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 대응 전략 및 AX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 공유 시간을 가지며 전북지역 AX 위원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기념하고, 산·학·연·관의 전문성을 결집하여 성공적인 향해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디어 경진대회 △전북글로벌창업이민센터 OASIS-1 교육 △J-Landing 글로벌 창업 이민 플랫폼 창업교육 △시군 청년혁신가 네트워크 등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한편 로비에서는 △친환경 이물질 AI 기술기반 로봇 스텝세차 시스템 △AI모델링을 통한 맞춤형 그림 제작, △XR 군사훈련 시뮬레이션 △퍼지컬 AI 기반 평가시스템 및 AI 기반 가상 교전시스템 등 AI, 테크, 핀테크 기업들의 전시부스가 아목을 집중시켰으며, 야외행사장에서는 △지역 교육 특성을 살린 유망 로컬 기업들의 아이템(식품, 화장품, 가공식품, 액세서리 등) △차별화된 전북 관광기업의 우수 관광상품 및 굿즈(한지 달력, 매듭 키링, 한글 젓가락, 동양화 제작 키트 등) △드론축구 체험 및 전시 △3D펜 활용 메이커 체험 등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 ‘메가어스 엑스포(MEGA US EXPO)’ 공동 주최기관인 베트남 호찌민시 과학기술국 산하 SHUB LE THI BE BA(레티베바) 부센터장이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이는 한-베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실질적인 교류 및 협업 강화로 전북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역의 창업 불을 목표로 시작된 ‘전북 창업대전’이 어느덧 10화차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가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전북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기후위기 속에서 AI, 바이오, 핀테크 등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세희 전북중기청장은 “지난 10년 동안 창업대전은 전북의 창업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지역의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 AX 위원회 발족과 함께 지금까지의 경험 위에 AI와 혁신이 만나 지역과 세계를 잇는 창업의 중심지,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지난 10년간 도내 창업유관 기관, 대학, 협·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힘써온 결과 전북 기술창업이 꽃피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북형 혁신성장 모델을 만들어 전북에서 창업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오상근 기자



첫 제설을 시작한 우주덕유산리조트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제설 장비를 가동해 3일 새벽 3시부터 스키츠 하단 슬로프에 첫 인공 눈을 뿌리는 제설 작업을 시작하며 겨울 손님 맞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전북자치도,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국가보조사업·보조금 집행 등 행정 전반 종합 점검…내달 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상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전문기관 참여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운영 내실화 기대

전북자치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 사무를 수행할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보육 관련 전문성과 인력·시설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중 전북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접수는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북도청 사회복지정책과 보육정책팀(10층)에서 근무시간 내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연계·순환 경제 거점화 구상 등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생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

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우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팩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여해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배터

리 수거·진단·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순환체계 구축 논의를 정교화한다. 이를 ‘전북특별법’에 반영해 새만금을 국가 배터리 순환경제 실증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제조원의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보완하고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의료, 재생 분야 세미나도 개최해 입법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장,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AI 방역 현장 점검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이 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군산시 만경강 하류 현장을 찾아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지난달 27일 전국의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



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지난달 29일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철새가 머무는 내년 3월까지 야생조류에서 AI 검출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철저한 방역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야생조류 AI가 가금류 사육시설로 전파되지 않도록 선제적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하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소독 등 개인 위생관리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도의회 상임위, 내년도 예산안 대비 연찬회 | 농업복지환경위·교육위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연찬회를 열었다.

먼저,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3일부터 4일까지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1박 2일 간의 연찬회를 열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보고 △부서별 현안 공유 및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통한 정책 개선방향 논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농생명축산산업국, 복지여성보전국, 환경산림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소관부서가 참석해 위원회에 직접 예산요구안과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도 3일 오후 군산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교육위원들과 도교육청 각 국장 및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재원 규모와 편성 방향,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과 논의의 시간이 되었다. 교육위원들은 중앙정부 교부금 감소,

그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자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자금 소진 등 교육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유사 중복사업 통합, 계속사업의 재검토 및 구조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자료를 들여다봤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국립축산과학원,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 착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日齡)별 표준체중’이 보상금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발육표준은 단순한 참고 수치를 넘어, 농가의 실질적인 보상액을 결정짓는 과학적 근거로서 중요하다.

현재 적용 중인 표준체중은 2017년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사양기술의 발전과 품종의

유전적 개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제 현장과의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예컨대 국내에서 주로 사육되는 ‘로스(Ross)’ 품종의 35일령 표준체중은 여전히 2,006g으로 책정돼 있지만, 해의 육계 회사의 최신 기준은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7% 이상 증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계 발육표준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연구는 국내 농가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와 ‘아바이아커(Arbor Acres)’ 등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양시험과 농가 현장 조사를 병행해 표준 데이터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